

二電子工業部門에서 본二

外國人 投資現況 分析과 그 施策

<上>

송 태 욱

韓國精密機器센터

韓國의 電子機器 生産現況

1958년 라디오 조립에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대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966년 T.V. 생산을 기점으로하여 본래도에 오르게 된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68년부터 73년까지 지난 5년간 년평균 75%의 생산신장을 이룩하였으며, 동기간동안 수출은 매년 1.9배씩 증가하여, 73년도에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53억원을 생산하여 1,380억원의 전자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총수출의 11%라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표-1

기기별 생산·수출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기기별	1 9 7 0					1 9 7 3				
	生 産 (A)		輸 出 (B)		B/A (%)	生 産 (C)		輸 出 (D)		D/C (%)
	金 額	%	金 額	%		金 額	%	金 額	%	
가정용 기기	94	29	25	17	27	542	29	320	23	59
산업용 기기	54	16	0.3	0.2	0.6	173	9	60	4	35
부 품	181	55	125	83	69	1,138	62	1,000	73	88
계	329	100	150.3	100	46	1,853	100	1,380	100	75

이는 전자제품 자체가 문명의 이기라는 점을 포함하여 정보의 신속한 대량전달과 정보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현대사회의 필요성과 경제발전

에 따른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공업 자체가 노동 기술집약적 산업

學 術 論 文

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는 하였어도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아직도 선진 제국에 비하여 그 규모가 영세

하고 기술이 빈약한 실정이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부품 부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의한 생산과 수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2

투자구분별 생산·수출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투자구분별	1 9 7 0					1 9 7 3				
	生 産(A)		輸 出(B)		B/A (%)	生 産(C)		輸 出(D)		D/C (%)
	金 額	%	金 額	%		金 額	%	金 額	%	
內 國 人	222	67	42	28	17	891	48	506	37	57
合 作	9	3	9	6	100	502	27	410	30	82
外 國 人	99	30	99	66	100	460	25	464 (마산포함)	33	—
計	330	100	150	100	45	1,853	100	1,380	100	75

특히 반도체부문에 투자한 몇개의 미국기업과 72년부터 대거진출한 일본과의 합작업체에서의 생산과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건설계획에 의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지속적인 투자 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계속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73년도에는 전자공업부문에 있어서의 72년에 2,8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인가되어 73년말 현재 총 150건 에 1억400만달러가 인가되었습니다.

표-3

투자 형태별 외국인 투자 현황(73. 12. 31현재)

금액단위 : \$ 1,000

국 별	투자형태별	단독 투자	합작 투자	계
美 國 (馬 山)		13건 268,95 (2건 600)	10건 5,020 (-)	23건 31,915 (2건 600)
日 本 (馬 山)		28건 35,521 (18건 26,551)	95건 32,948 (4건 2,399)	123건 68,469 (22건 28,950)
其 他 (馬 山)		2건 839	2건 2,856 (-)	4건 3,695 (1건 739)
계(馬山)		43건 63,255 (21건 27,890)	107건 40,824 (4건 2,399)	150건 104,079 (25건 30,289)

이는 전산업의 외자도입 인가인 849건 6억 5천만 \$ 과 비교하여 볼 때 금액상으로는 16%, 건수로는 17%라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국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상으로는 미국이 30.7%, 일본이 65.8%이며, 건수로는 미국이 16%, 일본이 82%로서 미국업체는 건당 평균 투자액이 140만 달러이며 일본업체는 건당 55만달러로 미국업체에 비하여 일본업체가 대체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投資形態別로 分析한 外國人業體

이를 투자형태별로 분석하여 보면 정부의 합작투자 인가원칙에 따라 전인가건의 71%가 합작투자로 대부분이나 금액상으로는 39.2%를 차지하여 합작투자가 단독투자에 비하여 소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表-4

投資規模別 外國人業體現況

73. 12月末 ()馬山

투자규모별	국 별	미 국		일 본		기 타		계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5	만불미만		2		22		1		25
5~10	만불	2	3		25			2	28
10~20	"	1(1)	2	1(1)	15	1		3(2)	17
20~50	"	1	1	6(1)	16(1)			7(1)	17(1)
50~100	"	2(1)		9(6)	6(3)	1(1)		12(8)	6(3)
100~200	"	3		8(7)	7			11(7)	7
200~500	"	2	2	4(3)	4		1	6(3)	7
500	" 이상	2						2	
계		13(2)	10	28(18)	95(4)	2(1)	2	43(21)	107(4)

즉 이와같은 국별, 투자구분별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대부분 업체들은 IC 및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단독투자와 전산기 부분품등의 소규모 합작투자자로 크게 양분할수있으며, 일본 업체는 축전기, 전항기, Trans. 등의 기본부품 부문에 대한 소규모 합작투자와 마산수출자유지역내의 대규모 단독투자로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규모 합작투자가 전체 투자인 가 전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쓰시타(松下), 쏘니, 도시바(東芝)등 일본의 대기 업의 대부분이 한국에 진출한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세계 제2의 전자공업국인 일본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함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오늘과 같이 우리의 전자공업이 급성장한

이유중의 하나로서 일본과의 지리적인 이점을 부정할수는 없으나, 아직도 우리의 전자공업이 원자재나 해외시장 및 기술면에서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하루빨리 시정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전자공업의 평형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81년도의 25억불 전자 제품 수출목표의 달성과 시장의 多邊化를 위하여도 미국과 서구의 선진자본과 기술의 직접 도입은 매우 소망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外國人 業體의 地域別 現況

다음은 이들 외국인 투자업체들을 공장 입지

表-5

地域別 外國人業體 現況

(73. 12末)

地域別	區 分	미 국		일 본		기 타		계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단 독	합 작
서울	수출공단(1~3단지)	2	1	4	22			6	23
	기타	7	4		12			7	16
경기도	부평·주안수출공단	1	3	1	9			2	12
	인천·소사지역	1			11			1	11
	수원·안양지역		1		5		1		7
	기타				11		1		12
구 미 전 자 공 단		1	5	8	1			6	9
마 산 수 출 자 유 지 역		2		18	4	1		21	4
기 타 지 역					13				13
계		13	10	28	95	2	2	43	107

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97업체가 서울 및 서울 근교인 경기지방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를 공업단지별로 볼 것 같으면 구미전자공단에 15개, 수출공단(1~5단지)에 43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25개, 기타 지방공업단지에 6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업체가 노동력과 생활여건이 미비한 지방보다 서울지역을 원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정부에서 공업단지를 제외한 서울지역내의 공장건설을 제한하고 있어 인건, 수원, 안양등 서울근교의 공장건설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인 전자공업 요람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 조성한 구미단지의 입주를 추진코자 아파트, 슈퍼마켓, 고속버스 Terminal 등 제반여건의 완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마산 및 이리수출 자유지역내의 전자업체 입주를 규제하고 있어 앞으로 동 지역의 입주업체가 점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발전과정과 외국인 투자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렸으나, 다음에는 이와같은 전자공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자 도입의 필요성, 문제점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外國人業體들의 投資率

73년말 현재로 전자공업에 등록하여 조업중인 256개 업체의 투자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6과 같습니다.

73년말 현재 전자공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191백만\$로 내자가 45.5%, 외자가 5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총액은 투자액의 총 2.4배인 4억63백만\$이었습니다.

이를 자본금과 종업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68%이며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52%로 대부분의

表-6 투 자 현 황 (1973. 12. 31현재)

	업체수	종업원	투자금액 (백만\$)	비 고
내국인	202	44,006	내자87	
합 작	42	22,558	외자104	
외국인	12	19,221		
계	256	85,785	191	내자45.5% 외자54.5%

업체가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자공업계에 있어서 부품의 계열화, 전문화를 통한 기업과 생산구조의 변경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토착화등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원자재난과 에너지 파동은 전자공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을 다시한번 새롭게 하여, 정부는 전자공업을 중화학공업의 최우선 육성부문으로 지정하여 그진흥 및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81년도의 전자제품 48억\$ 생산과 25억불 수출을 목표로 장기공장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表-7 長期需要推定

	'76	'78	'81
生 産	13억弗	23억弗	48억弗
輸 出	7 "	13 "	25 "
投資所要	1973~1981 (12억弗)		

즉, 상기 표-7에서 보는 바와같은 국내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73년도부터 80년도까지 내자 607백만불, 외자 585백만불로서 총 12억불을 투자하여 767개의 신규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내국인의 투자권장과 양질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모든 기술과 자본축적이 갖추어져 있다면 내자를 동원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우리나라의 현황이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으며, 자금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선진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하겠

입니다. 더우기 전자공업 자체가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으로 급변하는 선진기술과 해외시장에 관한 신속한 정보의 흡수와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의 유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연구투자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기술과 경영 기법의 올바른 도입은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과 외화 획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제품은 Learning Curve 이론에 의한 가격의 절감이 예측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있어 기존 시장의 침투와 시장 개척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공업부문에 있어서 국내자본과 내수만을 고려한 진흥정책은 수출증대라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몇년 동안의 성장을 이룩하여 이 제기반을 쌓기 시작한 바로 현시점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외자 도입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읍니다.

한 예로서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까지 인접 일본을 통한 기술의 간접수입으로 기술대가(Royalty)의 이중 지불에 의한 생산원가

〈表 8〉 美國의 트랜지스터, 集積回路의 平均單價 單位: 弗

	트랜지스터		集積回路	
	겔마니움	실리콘	디지털	리니어
1954	3.56	23.95	—	—
1955	2.88	20.44	—	—
1956	2.34	19.94	—	—
1957	1.85	17.81	—	—
1958	1.79	15.57	—	—
1959	1.96	14.53	—	—
1960	1.70	11.27	—	—
1961	1.14	7.48	—	—
1962	0.82	4.39	—	—
1963	0.69	2.65	—	—
1964	0.57	1.46	17.35	30.00
1965	0.50	0.86	7.28	28.83
1966	0.45	0.64	4.34	13.39
1967	0.43	0.58	2.98	6.18
1968	0.41	0.44	2.17	3.35
1969	0.37	0.37	1.58	2.22
1970	0.41	0.38	1.42	1.86
1971	0.46	0.33	1.22	1.48

資料: 美國EIA

의 제고뿐만이 아니라 Life-Cycle의 변천이 빠른 전자제품에 있어서 때로는 세계시장 조류에 락후 되어 제품이 사장되거나 제값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아직도 미국

〈表 9〉 日本의 重要電子製品 技術料支給(對美國)

(1964~1970年)

單位: 千\$

	텔레비존		천연색 브라운관	반도체	집적회로	축전기	計
	천연색	흑백					
1964	422	8,212	770	2,583	—	—	11,987
1965	723	6,322	1,089	3,456	—	59	11,649
1966	2,981	7,246	240	4,255	—	69	14,793
1967	7,288	7,645	324	5,356	—	89	20,702
1968	15,559	6,322	734	5,936	—	129	28,680
1969	27,079	6,463	1,028	8,578	5,278	167	48,593
1970	33,361	5,143	915	17,011	8,112	239	64,783

資料: 日本通産省

에 대하여 막대한 Royalty를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집적 회로

나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더우기 그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